

“전남 섬 종합관리·활용 전담기관 필요”

3000여개 섬 업무 3개 부처 나누어져 효율적 관리 어려워 해양수산개발원 발표...전남 유인도 39곳 50년후 무인도 될듯

국내의 유인도·무인도 등 3000여개 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여러 부처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3358개 섬 가운데 65%인 2165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의 보고(寶庫)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리 체계를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체계는 해양수산부(유인도)와 행정안전부(무인도)로

나뉘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한다. 3개 부처 통계는 제각각이다.

무인도의 경우 해수부는 2876개인데 비해 국토부는 3191개로, 유인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472개라고 통계를 냈지만 국토부는 486개라고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섬 업무 관련이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 관리를, 행정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섬의 생태계 보호를 담당한다.

섬의 위치와 해안선, 지형, 생태계, 소유 체계, 토지 이용 등의 업무도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눠서 수행하는 데다 조사 시기·방법·내용도 각기 달라 섬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영해가 접이 되는 섬들 가운데 무인도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인도는 정기적 조사를 하는 근거 법령 등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부 유인도가 무인도로 변하는 등 관리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물과 전기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전남의 유인도 39곳이 50년 후에는 무인도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섬 관리에 있어 해양영토 관리 차원은 물론이고 섬 주민들의 정주 안정성 증진, 체계적인 개발, 섬의 가치 증대, 섬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정책 수요가 높고 있지만 섬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에 흩어진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18 전남 해수욕장 개장정보

지역	해수욕장	개장기간	지역	해수욕장	개장기간
목포	외달도	7.7~8.19(44일간)	장흥	수문	7.13~8.12(31일간)
여수	거문도	7.7~8.19(44일간)	함평	돌머리	7.14~8.19(37일간)
	만성리	7.7~8.19(44일간)	영광	가마미	7.14~8.19(37일간)
고흥	나로우주	7.13~8.19(38일간)	완도	명사십리	7.13~8.19(38일간)
	발포	7.13~8.19(38일간)		예송	7.20~8.19(31일간)
보성	덕홍	7.13~8.19(38일간)	진도	중리	7.20~8.19(31일간)
	울포술밭	7.6~8.19(45일간)		가계	7.13~8.19(38일간)
해남	송호	7.8~8.15(39일간)	신안	관매도	7.13~8.19(38일간)
	사구미	7.8~8.15(39일간)		우전	7.14~8.15(33일간)
무안	홀통	7.14~8.19(37일간)	하트	대광	7.14~8.15(33일간)
	톱머리	7.14~8.19(37일간)		하트	7.14~8.15(33일간)

전남 해수욕장 다음달 6일부터 개장

명사십리·울포 등 55곳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열려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다음달 6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 6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와 보성 울포술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55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연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긴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을 자랑한다. 울포술밭 해수욕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해수 풀장에 더해 해수욕자센터도 새롭게 개장한다.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부터는 다른 해수욕장들도 잇따라 문을 열 계획이다.

전남도는 여름철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도내 해수욕장 곳곳에서 체험교실과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도 연다. 여수·무안의 바다 수영·윈드서핑 대회, 보성·함평의 비치발리볼 대회 등이 해변을 열기로 달군다. 해양레저스쿨, 요트학교, 스카우트 교실 등 체험 행사와 해변가요제, 음악회 등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여행객 안전을 위해 수질을 점검하고 12개 사군, 소방, 해양, 경찰과 협의회를 거쳐 손님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개장 시간, 편의시설 현황, 텐트촌 이용 등 관련 정보는 전남 해수욕장 누리집(<http://jnbeach.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완도군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판매를 위해 전복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완도 특남항에서 어민들이 전복을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선 6기 광주 구청장

마지막 협의회 개최

이번 달 민선 6기를 마감하는 광주 5개 구청장이 19일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송광은 광주 북구청장(협의회장)과 김성환 동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관산구청장이 광주 금수장 호텔 식당에서 민선 6기 구청장협의회 결산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정보 교환과 건설적인 방안 공유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후배 구청장에게 전수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퇴직 이후에도 수시로 만나 뜻있는 일을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광주는 5개 구청장이 모두 교체됐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3선 연임으로 물러나게 됐고, 김성환 동구청장·임우진 서구청장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최영호·민형배 구청장은 광주시장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지난 6년간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았던 송광은 북구청장은 “우리 광주는 5개 구청장과 시장이 유기적 관계를 잘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선 6기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민선 7기 구청장들은 광주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복 섬’ 사업 주먹구구...전남도 30억 낭비

진도군 해역에 2013년 착공 시설물 훼손 등 소송·감사

전남도가 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야심 차게 추진한 ‘전복 섬’ 사업이 차질을 빚어 30억원대 손실을 안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에 따른 대규모 혈세 낭비 사례를 남긴 것은 물론 소송, 감사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대한중재상사원은 최근 전복 양식 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훼손으로 생긴 추가 비용(이자 포함) 46억8000여만원 가운데 30억9000만원을 발주처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가, 15억9000만원은 시

공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전복 섬 사업은 진도군 전두~나리 해역에 국비와 도비 50%씩 모두 150억원을 투입해 전복 가두리 140ha, 해조류 양식 131ha 규모 시설을 만들어 수출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선 5기인 2011년부터 구상돼 2013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이듬해 5월 착공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가두리 관급업체가 2015년 9월 납품을 중단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업체는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전남도는 다른 업체와 변경 계약을 맺고 공사를 다시 추진했지만, 그사이에 수면 가두리 시설을 지지하

는 달이 영키고 유실돼 분쟁이 발생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시공사는 빠른 조류와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남도는 장기 소송으로 가두리 시설물이 방치되면 인근 어장이 피해를 보고 양식 자재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덜 걸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판정 결과는 비용상 전남도와 시공사 간 2대 1가량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전남도는 중재 판정으로 떠안게 된 30억 9000만원 가운데 14억9000만원 가량을 예비비로 지급했으나 추정 예산 심의 등 나머지 비용 마련 과정에서 의외의 반발 등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임기 막판 산하기관장 공모 논란

광주 일부 기관장 공모 중 일부선 부적절 제기도

민선 6기 임기 종료로 앞두고 광주시의 일부 산하기관이 원장 등 간부급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와 달리 향후 운영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기 말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시는 민선 7기 이용섭 당선인 측과 협의를 통해 재공모를 연기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전임 원장의 지방선거 출

일 제5대 원장 채용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지원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원장후보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오는 29일 2차 면접시험을 갖고 최종 원장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장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선 6기 임기 종료로 앞둔 시점에서 원장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공모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민선 7기 혁신위원회와 협의해 현재까지 응모자가 없어 재공모를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선을 미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마로 공석이 된 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 4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